

기도

1. 복 받는 자들이 되도록 기도합니다.
2. 담임 목사님과 교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나눔

1. 당신이 기억해야 할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2. 오늘 당신이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신앙

바이블로 스가랴

스가랴는 회개하고 하나님의 왕국과 메시아의 오심을 준비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스가랴는 여호와의 날에 하나님 앞에 성결된 것을 고대하면서 우리를 어려운 환경 너머를 바라보며, 장차 임하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한다.

구역 공과

2021년 10월 24일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심이라

오라 우리가 여호와와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이사야 2장 2-4절)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심이라

신명기 8장 14-18절 (28장, 301장)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여호와를 경외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 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예전 일들을 상기시키며 여호와를 잊지 말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로는, 여호와를 잊지 말라는 말씀입니다(14-16절).

여호와를 잊는 이유는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은혜주실 때 교만함으로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육신적인 면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영적인 면이 내려가면 하나님은 여러가지 일들을 통해 육신적인 면을 누르시고 영적인 면이 올라가게 하십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은혜를 받는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만, 교만함으로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없고 스스로 넘어져서 망할 수 밖에 없음을 가르쳐주십니다.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첫째,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은혜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모세를 통해 종 되었던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비록 40년간 광야 생활을 했지만, 더 이상 종이 아니라 자유자가 되었고 하나님이 친히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죄와 사망, 마귀의 종이었지만,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구원을 완성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 죄를 씻으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우리 속에 내주하시면서 날마다 인도해주십니다. 구속의 은혜는 한번 받으면 취소되지 않는 영원하고 확실한 은혜입니다.

둘째, 광야에서 인도해주신 은혜입니다. 광야는 물이나 양식이 없고 사람이 거할 수 없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약 40년간 인도해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사람의 힘만으로는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 가운데서도 살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또한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생명의 양식을 주셔서 심령의 갈급함을 채워주십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생명의 양식으로 말미암아 기쁨과 감사로 사명과 신앙 생활을 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셋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낮추시고 시험하신 것은 복을 주려 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은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광야 생활을 통해 이스라엘을 낮추시고 시험하사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자격이 만들어졌을 때 은혜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복주시기 위해 낮추시고 시험하시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좋은 것을 주셨을 때는 더 힘을 내 열심히 달음질하고, 안될 때는 복 주시기 위함임을 깨닫고 모든 것을 은혜로 여기고 감사하면서 여호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복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것이 복이고,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것이 복입니다.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함께하실 때 은혜를 베풀어주십니다.

두 번째로는, 언약을 이루신다는 말씀입니다(17, 18절).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간 후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의 언약으로 들어갔음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신 것은 그들이 잘나서가 아니라, 다만 하나님이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언약대로 이루어가시는 것입니다(신7:7,8).

하나님이 오늘 우리도 사랑하셔서 택하시고 구속을 언약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구속 언약의 확실한 증거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죄를 지으면 안타까워하시고 책망하시면서 돌아오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언약대로 이루어 가심을 믿고 여호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마침내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맺 음 말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가난하고 겸손한 심령으로 여호와께서 구원해주신 것과 세상 가운데서 인도해주시는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마침내 복 주시기까지 인도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